

불은에 화답하는 위대한 여정...

(佛恩)

10월1일 비구·비구니 55명, 우바새·우바이 42명 등 사부대중 97명이 길을 나섰다. 구도의 절실함마저 수승한 승보의 길 송광사, 부처님의 가르침이 길마다 정엄한 범보의 길 해인사, 본래의 모습이 다 부처라고 일깨우신 불보의 길 따라 통도사를 찾았다. 18일 동안 천리가 넘는 423km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삼보사찰 순례를 마쳤다. 위대한 여정의 감동을 사진으로 전한다. 김형주 기자 cooljoo@ibulgya.com



“거룩한 삼보에 귀의하오며, 이 음식을 받습니다. 이 공양이 있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, 모든 생명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, 사바하.” 순례 중 공양 때마다 합송하는 공양기도문. 원래 식사의 고마움을 표하는 오관게가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었다. 순례단에서는 불교학자, 국어학자, 스님 등이 모여 기존 공양게의 핵심 내용을 담아 57자의 공양기도문을 새롭게 만들었다.



①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 국사전을 참배하는 순례단. ②10월4일 천은사 참배를 마친 순례단이 수흥문 지나며 기념촬영을 했다. ③10월9일 순례단은 범보종찰 해인사를 참배했다. 장경판전을 예를 갖추고 지나가고 있다. ④매일 새벽 예불을 마치면 순례단 전원은 이룸표 뒤에 있는 발원문을 낭독한다. ⑤10월16일 새벽 순례길. 첫 휴식시간에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시멘트 턱에 걸터 앉아 잠시 쉬고 있다. 늘 순례단을 이끌며 건강한 모습을 보였던 회주 스님이 순례를 이틀 남겨둔 이 날 처음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.

